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형 추가 선발

22일까지 잔여 세대 4호 광주 10분거리 접근성 생활편의 등 여건 갖춰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형 입주자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모집 호수는 총 4호로 잔여 세대에 대해 신혼부부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많을 시 추첨 행사를 통해 입주자 및 동·호수가 동시에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근로(사업) 소득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22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50호, 하반기 50호로 2

회에 걸쳐 모집했던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은 올해 상반기 100호 모집으로 1년 목표량을 채우기 때문에 이번 신혼부부형 4호 추가 모집이 올해 마지막이다.

신청 자격·일정, 자격 조건 등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은 대표번호(061-379-3631~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광주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탁월하고 인근에 군청, 은행,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만연초등학교 등 생활편의 시설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화순 만원 임대주택은 2023년 1차 모집 시 10대 1, 2차 모집 시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젊은 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며 청년 유입·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가시없는 이형두릅 출하 영광두릅작목반

영광에서 독특한 향과 맛으로 산채의 제왕이라 불리는 '봄 보약' 두릅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농가 17곳으로 구성된 영광 두릅 작목반에서 가시 없는 '이형두릅' 출하가 한창이다.

영광군의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받아 재배한 이형두릅은 일년에 봄·여름 두 번 수확이 가능한 고소득 작목이다.

두릅은 칼륨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염증을 억제해 주고 섬유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다량 함유된 사포닌은 혈당과 혈중 지질을 낮추고 모발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 이형두릅 작목반은 올해 재배면적 3305.7㎡에서 원순 300kg을 우선 수확하고 결순이 올라오는 초여름에 추가로 500kg을 채취할 예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원순 출하 시기 도래로 임업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목반은 '이형두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광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남제철 기간'에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두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연산 나무 두릅뿐 아니라 연중 봄과 여름에 두 번 수확이 가능한 이형두릅 재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앞으로도 임업농가의 고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함평군농업기술센터

함평군이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 저탄소 자연순환을 목적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나섰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파쇄지원단은 함평군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원에서 3~4월, 11~12월에 주로 운영한다. 파쇄 대상 영농부산물로는 △과수 잔가지 △고춧대 △깻대 △콩대 등이며, 현재까지 15.3ha에 25.1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난 12일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면서 안전모 착용, 파쇄기 사용요령 등 현장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봄철 산불 발생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깨끗한 농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이 산불예방, 저탄소 자연순환을 목표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함평군 제공

에너지컨버터 '꿀벌부자' 리뉴얼 출시 '눈길'

전남 청년창업타운 입주기업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청년창업타운 입주기업인 친환경 바이오 소재 전문개발업체 에너지컨버터(이수민 대표)에서 꿀벌 질병 억제용 면역증강제인 '꿀벌부자(사진)' 리뉴얼 버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기존에 출시했던 '꿀벌부자' 단점인 제품 성능을 보완하고 사용자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백복병 등 불치병에 대한 예

편의성을 증대했다. 꿀벌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는 락토바실러스 계열 미생물을 사용해 꿀벌 질병들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백복병 등 불치병에 대한 예

방사례가 나오면서 제품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세계적 꿀벌의 집단폐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류 식량 위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위기상황 속에서 '꿀벌부자'의 등장은 양봉인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컨버터 이수민 대표는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친환경 소재와 제품들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화순군, 경로당 등 방문

화순군은 지난 8일과 12일 도곡면 안한실 경로당과 사평면대곡1리 경로당을 찾아가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화순군 이동복지상담실은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지를 신청받아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모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회차까지 진행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1부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유익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부에서는 희망자 맞춤형 1:1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숨어있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신청·접수를 받기도 한다.

도곡면 안한실 경로당과 사평면 대곡1리 경로당에서는 1:1 맞춤상담 희망자가 많아 순서를 정하여 진행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1금고 농협은행·2금고 광주은행 선정

화순군은 17일 차기 금고로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차기 금고를 선정했다.

군 금고 선정은 화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한 결과 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화순군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2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19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 결과 1순위에 NH농협은행, 2순위에 광주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화순군 금고가 취급하는 회계는 NH농협은행이 일반회계, 15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고향사랑기금)을, 광주은행이 3개의 기금(통합재정안

정화, 재난관리, 식품진흥)을 관리하며 2개 금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화순군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은 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인으로 화순군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수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군 금고를 선정했다"라며 "차기 금고가 다양한 군청 업무와 지역 발전을 충실히 지원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영광군, 23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영광군은 오는 23일 보건소 정선건강복지센터 2층에서 군민들의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영광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신용회복 상담단 등 총 7명의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군민들의 고충과 질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 제도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

창업·경영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개선·활성화와 상품권 사용 등의 민원을 중심으로 교통도로민원, 도시수자원민원, 주택건축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 등의 다양한 행정분야 민원과 부패·공익신고 민원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 상담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담양군, 이달말까지

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와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서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